잃어버린 몸의 추억과 추적

얀 파브르의 「눈물의 역사」

박 성 혜 · 무용평론가

어떠한 예술 작품에 있어 찬사만큼 비난도 중요하다. 어찌 보면 진정한 작품은 일방적 칭송이 아니라 찬사와 비난의 한 복판에 서 있어야 한다. 특히 동시대성을 추구하는 현대 예술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 옹호와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현대 작품이라 여겨진다. 「눈물의 역사」는 우리가 잊었던 몸에 대한 추억과 추적을 담은 현대 작품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작품은 인식의 역사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무용이다

이것이 무용일까? 춤보다는 일반적 움직임이, 움직임보다는 언어가, 언어보다는 총체적 이미지가 더 강렬한 무대 위의 광경을 마주 대하자 우선 드는 생각이었다. 아무리 작금의 현대무용이 장르 구분 없이 파격적으로 진행된다고는 했지만 정작 이렇게 만나니 적잖은 충격을 준다.

지난 2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얀 파브르의 「눈물의 역사」는 이러한 혼돈과 충격의 한복판에 있었다. 작년 아비뇽 축제에서 초연되었을 당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불러 일으켜 화제가 된 작품답게 이 작품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대체적으로 일반적 찬양과 칭송보다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 거북스러움과 충격 강도에 대한 미흡함에 대한 힐책이 대세를 이루었다. 물론 여기에서 '충격 강도' 라 함은 노출을 비롯한 충격적 이미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작품을 앞서 소개한 언론들의 책임이 크다.

일간지를 비롯해 각종 언론들은 작품에 대한 호기심 유발이란 차원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무용수들의 누드를 집중 보도해 관객들의 이상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막상 작품이 이를 채워주지 못하자 그 '강도' 에 대한 기대치 미흡이 운운된다. 과연 어느 정도의 충격과 센세이션이 우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무한한 자극에 노출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바로 과연 이 작품은 시각적 자극의 강도에 비례해 평가해야 했을까 라는 의문이다. 적어도 안무가 얀 파브르가 시도한 시각적 자극은 관객들의 경각심 유발과 주제 전달의 주목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 보다 더한 충격과 센세이션은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갑작스런 충격으로 자신을 드러냈을 거란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작품 「눈물의 역사」는 확실하게 미흡했다. 그렇다면 안무가가 그러한 의혹의 여지를 감수하고서라도 감내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

안무가 얀 파브르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몸에 대한 보고서'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몸의 분비물을 소재로 한 몸에 대한 보고서다. 눈물, 땀, 오줌 등과 같은 체액과 같은 분비물 말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출연진과 움직임을 주관하고 있는 출연진들 사이에서 작품 「눈물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몸에 대한 역사성을 드러낸다. 특히 서구적 시각과 관념 속에서 사장되고 석화(石化)되어 버린 몸을 다시 깨어나게 몸부림친다. 그중에서도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사고들로 인한 몸의 고정화에 대한 정면 거부가 두드러진다.

까? 다시 한 번 궁금해진다.

이것은 아방가르드가 아니다

안무가 얀 파브르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몸에 대한 보고서'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몸의 분비물을 소재로 한 몸에 대한 보고서다. 눈물, 땀, 오줌 등과 같은 체액과 같은 분비물 말이다. 안무가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육체 3부작인 「나는 피다」와 「울고 있는 육체」의 연결 작품쯤에 해당된다. 앞선 작품들이 세계 공연예술계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킨 화제작이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번 작품 「눈물의 역사」는 발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무대는 울고 있는 육체, 방료하고 있는 인간, 물로 가득 찬 뚱뚱한 몸을 가진 무용수의 등장 등 여러 모습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왠지 몸은, 그래도 이 작품의 소재요, 부분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언어를 사용한 텍스트의 활용이다. 작품 내내 출연진들에 의해 진행된 언어는 롤랑 바르트가 자신의 저서 『사랑의 단상』에서 한 질문 "인간은 어떤 사회, 어떤 시대에 울었는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함축되어 있고 지극히 은유적인 언어들은 기사와 개, 돌의 대화였다.

우리 시대의 광인인 기사는 무대를 휘젓고 다닌다. 반면 가장 미천한 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개는 진정한 인간의 실종과 몸의 부재를 떠들고 다닌다. 반면 돌로 분한 여성은 무대 위의 높은 허공에 얹어져 시종일관 부동의 자세다. 그녀는 화석화된 몸, 몸에 대한 고정된 관념의 세계로 상징된다. 그녀는 확실히 돌이 된 몸이었다. 그러면서도 외형은 여왕이다. 권위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돌인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들의 이러한 역할 분담과 또 그러한 그들이 내뱉는 언어를 배경 음악 삼아, 혹은 상황 설정으로 삼아 무대의 육체들이 움직인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 「눈물의 역사」는 분명한

유리병을 관절과 근육을 이용해 끼고 있고 사다리들의 효과적 이동과 사용, 자신의 팬티를 기다란 나무 끝에 매달고 흔들기 등 거칠어 보이는 몇몇의 장면들과 실험들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치밀한 구성에 속해 있는 절도 있는 행위들이었다. 그러한 차원에서 「눈물의 역사」는 전위가 아니었다.

사진출처 : 문화예술전문포털 아츠(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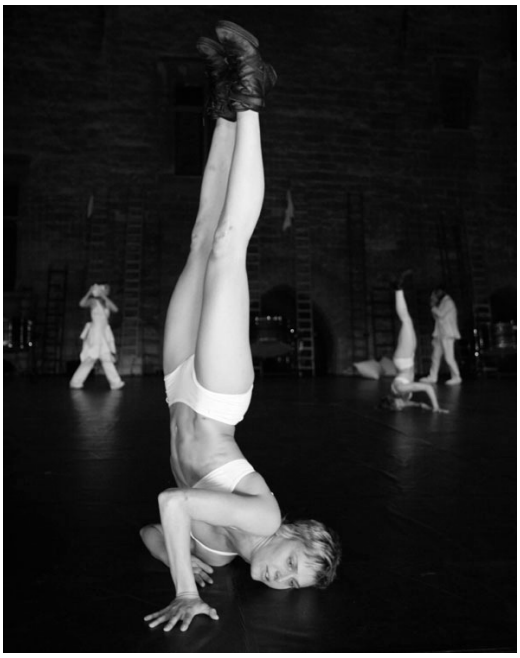
텍스트가 존재한다. 그다지 친절한 텍스트는 결코 아니었지만 안무가가 최종적으로 말하려 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언어를 사용하는 출연진과 움직임을 주관하고 있는 출연진들 사이에서 작품 「눈물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몸에 대한 역사성을 드러낸다. 특히 서구적 시각과 관념 속에서 사장되고 석화(石化)되어 버린 몸을 다시 깨어나게 몸부림친다. 그 중에서도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사고들로 인한 몸의 고정화에 대한 정면 거부가 두드러진다.

과학의 발전, 기독교의 깊은 영향, 르네상스와 같은 부흥의 시대가 일구어 낸 서구적 시선이 추방한 몸을 안무가 얀 파브르는 다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그리움은 작품 곳곳에 베여있는데, 공연 내내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무용수들의 행위는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유리병을 관절과 근육을 이용해 끼고 있고 사다리들의 효과적 이동과 사용, 자신의 팬티를 기다란 나무 끝에 매달고 흔들기 등 거칠어 보이는 몇몇의 장면들과 실험들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치밀한 구성에 속해 있는 절도 있는 행위들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눈물의 역사」는 전위가 아니었다. 이미 이 작품은 구성상의 세련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전위를 넘은 주류의 작품이다. 단지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세속과 현실, 그리고 어느새 고정화 되어버린 진실을 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는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과 형식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식과 세계를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물론 그 한 복판에는 작가가 생각하고 상정해 놓은 몸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시 몸을 소재에서 다시 주제로, 방법론에서 본론으로 이동시킨다. 이 작품에서 몸은 더 이상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 셈이다.

재미있게도 동양에서는, 아니 좀더 좁게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성을 넘어서는 곳에 신을 등장시킨다. 좀더 구체적인 형식으로는 굿이 있다. 굿을 통해 접신을 꾀하고



얀 파브르의 「눈물의 역사」 공연 중에서
사진출처 : 문화예술전문포털 아츠(arts)

구원을 찾는가 하면 삶의 소화불량을 해소한다. 작품 「눈물의 역사」의 마지막은 신을 다시 찾고 있으며, 역시 구원을 추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작품은 일종의 굿과 일맥상통함을 내포한다. 단지 방법상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잊었던 몸에 대한 추억과 추적

이성과 과학의 신봉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몸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되새겨 보는 얀 파브르. 그 중간에는 서구 문명사와 자신도 모르게 체화되어버린 몸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안무가는 그러한 몸을 거슬러 새로운 반론을 제기한다. 덕분에 그의 작품에는 유럽의 중세가 자주 등장하고 벗은 몸이 일반화되었으며 어떤 장면들은 사뭇 원시적이다. 이번 작품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보니 그는 인터뷰에서 벗은 몸은 자신의 작품에서 필수적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막상 접하니 그러한 선택이 충분히 이해된다.

무리한 언어의 사용, 평온한 사유를 방해하는 자극적인 장면들, 그러면서도 전혀 새롭지 못한 시각적 시도들 등으로 인하여 혹자들은 작품의 혁신성과 외관상의 신선함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반론들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과 장면을 넘어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작가가 쫓고 있는, 우리가 잊었던 몸에 대한 추억과 추적이야말로 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작품은 인식의 역사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어떠한 예술 작품에 있어 찬사만큼 비난도 중요하다. 어찌 보면 진정한 작품은 일방적 칭송이 아니라 찬사와 비난의 한 복판에 서 있어야 한다. 특히 동시대성을 추구하는 현대 예술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 옹호와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현대 작품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눈물의 역사」는 현대 작품이다.

※ 바로잡습니다!

지난호 무용분야 리뷰(75면)에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창단 30주년 기념공연〉으로 게재된 사진은 창무회 창단 30주년 기념공연인 〈창무 한국창작춤 메소드 공연〉으로 바로잡습니다.